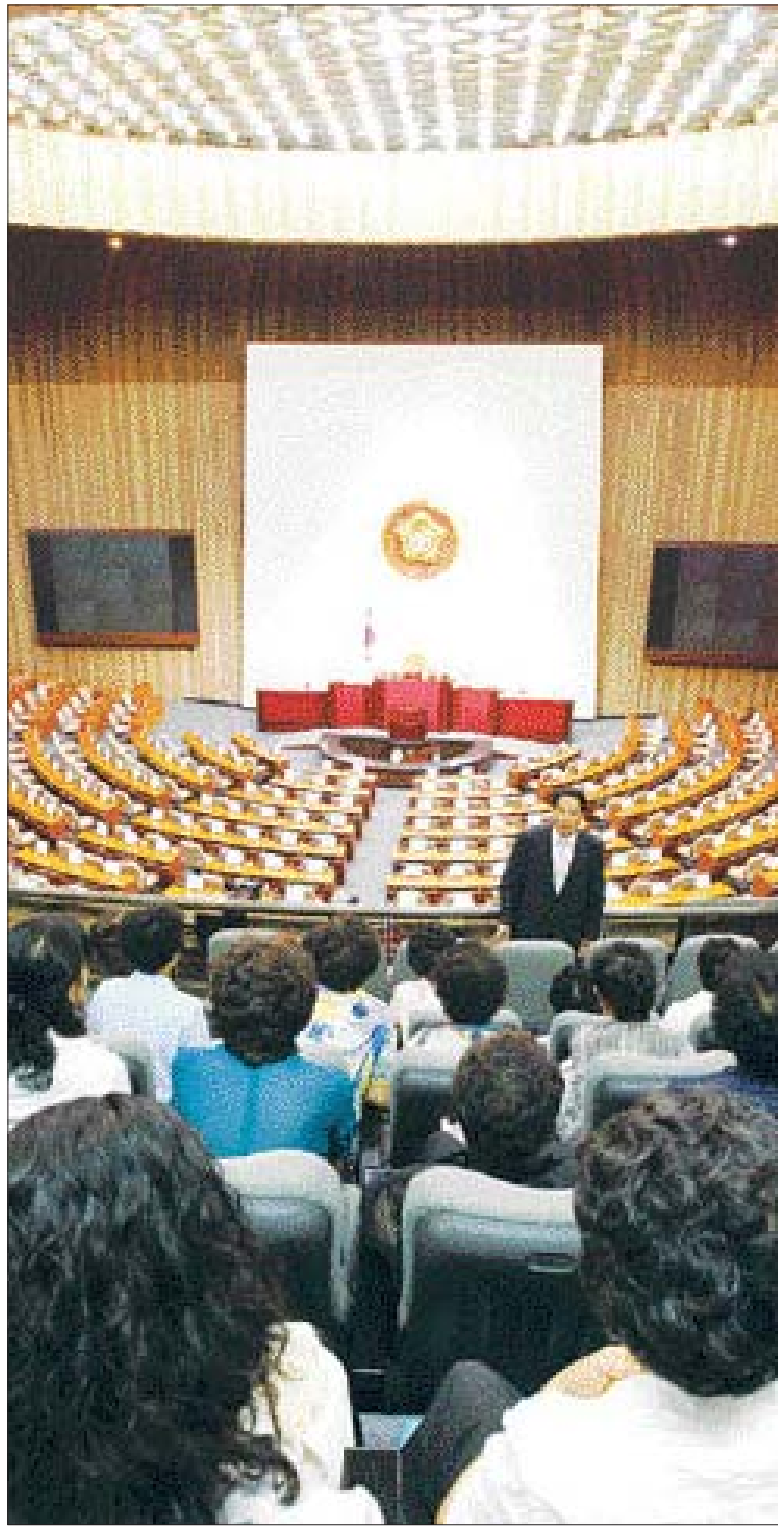


# 국회 원구성 지루한 줄다리기

### 여야 가축법 개정안 막판 절충 진통 본회의 오늘로 연기...타협 가능성도



여야의 가축법 개정을 둘러싼 마지막 원 구성 협상이 진행중인 18일 오후, 국회를 찾은 참관객들이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해 별명인 국회 본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8일 국회 원구성 협상을 재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조율에 들어갔으나 가축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 원구성 협상의 마감시한으로 제시한 이날 오전 전면 폐쇄했던 협상장구를 다각도로 재가동했다.

양당 수석 원내부대표간 접촉이 오전 9시30분부터 열려 1시간가량 이어졌고 오전 10시에는 양당 정책위의장이 독대를 통해 원구성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해 부분 절충을 시도했다.

양당 간 가축법 부분 절충 내용은 한나라당이 가축법 개정안 부칙 2조를 포기하는 것, 부칙 2조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법 개정안이 한미 쇠고기협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신 가축법 본문에 기존 한미 쇠고기 합의의 존중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법안 본문에 추가하는 것을 단서로 달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본문 추가 조항이 애매하며 난색을 표명하면서 "논의는 해보자"며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후 2시20분 양당 원내 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가축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인 회담을 하고 조율작업을 벌였다.

양측간 회의는 정화와 속개를 반복하다 오후 6시쯤 또다시 정회됐고, 오후 8시에는 선진 창조 모임까지 포함하는 3당 회동을 갖고 막판 대타협을 시도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가축법 개정안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데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는 판단을 상임위 차원에서 심의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개정 가축법이 기존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적용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추가 협상 결과가 개정안에 포

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협상장 주변에서는 타협이 임박한 것 같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협상 전망에 대한 부정적 기류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 파행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간 협상이 지루하게 이어지면서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5시, 7시로 두 차례 연기됐다가 결국 취소됐다. 대신 김형오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소집했다.

18일 밤 협상에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질 경우 양당은 19일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추진하게 되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은 단독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지지한다는 계획이어서 물리적 충돌과 함께 국회 장외 파행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시·전남도 첨단의료단지 유치 가능성은

## 광역경제권 사업 편입땐 승산

### 의료 인프라 확충·균형발전 등 당위성 부각 주력

광주시와 전남도가 호남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유치에 나선 '첨단 의료복합단지'는 새정부가 추진하는 최대 규모의 지역 지원사업이다.

오는 2037년까지 모두 5조6천억원이 투입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유치전에 뛰어든 자치 단체만도 대전·충북·대구·경북·인천 등 10여개에 달한다. 입지선정은 올말에 이뤄진다.

이 때문에 시·도는 유치전략의 차별화를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하는 5+2 광역경제권 사업에서 호남권 선도사업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호남권의 의료산업 수준을 부각함으로써 지역 발전차원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시·도의 전략이 주효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광역경제권 사업에 편입되는 것이 관건이다.

시 관계자는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광주, 전남북의 입지조건과 의료산업 인프라가 타 시도에 뒤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호남권 유치는 호남지역 발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시·도는 지역 의료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토균형발전 등 유치 당위성을 최대한 부각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박광대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첨단의료복합단지 공동유치활동을 펴기로 한 것도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시·도는 지난달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공동유치협의회를 갖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공동유치위원회 구성,

### 호남권 첨단의료 복합단지 개념도



세미나 개최, 응역 등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이 사업을 분산 추진할 경우에 대비, 보건복지가족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예시 모델로 제시한 병원의료서비스, 신약·제약 개발, 의료기기 산업 등 부문별 공략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들 3개 부문 가운데 최소한 1개 이상은 호남권으로 와야 한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한 것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시의회 U대회 재도전 촉구 수순밟기

### 26일 전체의원 간담회 후 결의안 채택 추진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의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 재도전을 촉구하기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18일 오전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광주시가 U대회 유치가 다시 나서야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오는 26일 오전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지

금까지 진행된 U대회 재도전과 관련된 토론회, 시민단체 등 각계 견해와 지지 성명 등을 검토한 뒤 의회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특히 재도전을 하는 쪽으로 결정될 경우 27일부터 열리는 제 173회 임시회에서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재도전 촉구 결의안"도 처리키로 했다.

이와관련, 지방행정동우회 광주시지회는 지난 13일 "2015 하계U대회 광주유치를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국제도시로서의 브

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U대회와 같은 국제스포츠 대회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최근 '2013 광주 하계 U대회 유치위원회 해산 동의서'에 서명을 하면서 유치위원회가 확보한 국민체육진흥기금 18억원·시 보조금 29억원·일반시민 기부금 59억원 등 총 106억원 가운데 U대회 집행위원의 광주 방문 비용과 프레젠테이션 준비 금액, FISU 집행위원 국가 방문비용 등 세부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시의회 교육사회위원장 누가 맡나

### 조광항 의원 포기 김동식·나종천 의원 대결

성폭력 연루 의혹을 받은 김월출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광주시의회 교육사회위원장(이하 교사위원장) 선거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새 위원장 선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는 19일부터 22일까지 교사위원장 후보 등록을 받은 뒤 27일 열리는 제 173회 임시회에서 후보자 정견 발표를 거쳐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교사위원장 선거는 당초 김동식(70·서구 2), 나종천(65·남구 2), 조

광항(64·민주 비례) 의원간 3파전 양상이었으나 조 의원이 출마 의사를 접으면서 김·나 의원간 대결로 압축됐다는 것이 시의회 안팎의 분석이다.

조 의원은 지난 7월 위원장 선출 당시 부의장직까지 마다하고 교사위원장에 출마, 김월출 의원과 경쟁에 나설 정도로 관심이 커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이미 한차례 출마해 떨어지기도 했고 위원장은 아니지만 교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데 또다시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김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들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 지지를 부탁하는 등 적극적으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2년간 특별한 흠집없이 의정 활동을 펼쳐 왔고 다른 위원장직을 맡고 있지 않은 만큼 교사위원장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나 의원도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나 의원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생각"이라며 출마 의사를 피력했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미용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광주 성형외과개원의 협의회**

신앙의 성령은 사랑과 기쁨입니다. 성령의 사랑과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사랑과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세계 성형외과 #311-1114	고.전. 성형외과 #221-7000	대동초 성형외과 #303-0076
오현근 성형외과 #300-3003	광.주. 성형외과 #682-1175	제2차 성형외과 #752-5252
최세훈 성형외과 #375-4114	권내수 성형외과 #254-0002	비공군 성형외과 #236-3200
조희현 성형외과 #229-4020	김명일 성형외과 #227-3777	황.진. 성형외과 #794-7000
김동원 성형외과 #225-3110	김복식 성형외과 #316-7777	신지호 성형외과 #222-0022
최희영 성형외과 #230-8525	김관익 성형외과 #225-3777	백기 성형외과 #232-3000
최석현 성형외과 #224-7000	류병수 성형외과 #234-0009	새.원. 성형외과 #211-4000